

## 설교통역사의 해석학적 역할에 대한 고찰\*

김희준(독립연구자, 고원교회)

### 1. 서론

설교통역(sermon interpreting)은 설교와 통역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해석학적 활동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설교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오랜 해석학적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Palmer, 1969, pp. 35-36; Gadamer, 1975, pp. 511-512), 통번역 역시 그리스·로마 시대 이래로 장구한 해석학적 역사를 갖고 있다(Steiner, 1975, pp. 266-267; Palmer, 1969, p. 12; Venuti, 2000, p. 4). 즉, 두 학문이 모두 해석학적인 기반 위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번역학에서 해석학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스타이너(G. Steiner)는 통번역이 직역, 의역, 환언(literalism, free imitation, paraphrase)이라는 낯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면 해석학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teiner, 1975, pp. 296-300). 스타이너의 주장은 통번역(Translation)<sup>1)</sup>이 해석학적 작업

---

\* 본고는 저자의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최경희)을 수정·보완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논문 정보는 참고문헌을 확인하라.

1) 본고에서는 대문자 'T'를 사용하는 'Translation'을 최근 통번역학의 추세에 따라 (Gile, 2009, p. 1), 설교통역처럼 통역(interpreting)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역과 번역을 포함하는 '통번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번역이론과 통역이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용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이며, 해석학적으로 이해되고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통번역학이 해석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철학적 해석학을 집대성한 학자로는 일반적으로 가다머(Gadamer, 1960)를 들 수 있는데(Palmer, 1969, p. 214; Gill, 2015, p. 10), 그의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이해(understanding)에 관한 것이며, 통번역에 관한 해석학적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대표작인 『Truth and Method』에서 번역이 해석학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보면 통번역이라는 현상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Gadamer, 1975, pp. 387-389). 가다머에 의하면 언어는 이해가 발생하는 보편적 매체이다(Gadamer, 1975, p. 390). 그러나 이해는, 이 보편적 매체인 언어를 해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다(Gadamer, 1975, p. 390). 즉, 통번역은 언어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석이라는 보편적 현상의 일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통번역 역시 해석학적 활동의 영역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고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통번역이 해석학적이어야 한다는 스타이너의 주장과 번역은 곧 해석이라고 말하는 가다머의 명제가 제시하는 구체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주장을 따른다면, 설교통역사의 해석학적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통번역이 해석학적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론은 구트(E. Gutt)가 주장하는 통번역의 ‘해석적 용법’으로 사료된다(Gutt, 2000, p. 105). 구트의 이론은 본래 스퍼버와 윌슨이 주창한 발화의 두 종류 중 언어의 해석적 용법(interpretive use)을 차용한 것이다(Sperber & Wilson, 1986, pp. 224-231). 이 해석적 용법을 통번역에 차용할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령 1973 빌리 그레함 설교를 통역한 김장환의 설교통역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할 때(Harkness, 2017, p. 113) 빌리 그레함의 설교와 ‘해석적으로 유사한’ 것이 된다(Stolze, 1997, p.61)<sup>2)</sup>. 구트는 이 해석적 유사성을 원문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

2) Stolze가 Paepcke를 인용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통번역은 ‘해석학적인 개요’(a hermeneutical draft)이며 원문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자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트가 말하는 해석적 유사성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Gutt, 2000, p. 214).

본고는 이와 같은 구트의 해석적 용법을 가다머의 해석학과 스타이너의 해석학, 그리고 쉘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의 해석학 등과 비교하면서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가다머의 지평융합(fusion of horizons)이 설교통역사의 해석학적 역할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 역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론적 범주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 2. 설교통역의 해석학적 지평

설교통역은 설교라는 신학적 활동과 통역 그리고 선교 및 포교적 목적과 인간의 구원이라는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실존적 문제 등이 긴밀하게 결합된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다(Lyu, 2013). 설교통역이 해석학적 작업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이다. 즉, 설교자는 해석학자이며(Lyu, 2013) 설교는 기독교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고(Buttrick, 1987, p. 249), 구체적으로는 고유한 상황 속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Lyu, 2017, p. 188, 201). 설교통역사 역시 의미를 전달하는 해석학적 선상에서 활동하고 있다<sup>3)</sup>.

설교통역이 일반적인 통역 분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설교통역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명제이다. 신혜인은 설교통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설교통역은 일반적인 구분인 국제회의 통역이나 커뮤니티 통역과 다른 특수한 통역 분야로 결론 내렸다(신혜인, 2015, pp. 92-96). 설교통역은 설교라는 종교적 예전과 통역이라는 특수한 학문적 영역에서 논의되는 주제와 동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설교통역사는 기독교 신학의 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동시에 통역학의 연구성과 및 실천적 관행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설교는 기독교 신학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신학의 커리

3) 그러나 설교통역이 설교를 (설교통역사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컬럼이 사실상 한 편의 설교를 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arth, 1966, p. 17). 통념과 달리 설교는 성서의 구절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청중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게 하는 해석학적 작업이어야 한다(Lyu, 2013). 따라서 설교통역사는 설교자가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여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설교자의 발화와 청중의 이해 간에 놓여 있는 해석학적 연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만 충실한 통역을 할 수 있게 된다. 구트가 주장하는 통번역의 해석적 용법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즉, 설교자의 발화 속에 담긴 언어적 지평이 청중의 이해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설교통역사의 언어로 표현된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교통역이 조우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해석학적 지평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철학적 해석학과 통번역학에서의 해석학적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설교통역이 고려해야 하는 해석학적 이론과 함의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본고는 해석학이나 통번역학에서의 해석학적 연구사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대신 주요한 해석학 이론과 통번역학에서의 독립적인 해석학적 연구 중에서 특기할만한 연구들을 개괄하는 것으로 설교통역의 해석학적 지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3. 통번역학에서의 해석학적 지평

#### 3.1 해석학적 순환

해석학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현대 해석학의 대부분은 슐라이어마허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tolze, 2010, p. 141). 모든 해석학의 출발은 사실상 슐라이어마허에서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Ricoeur, 1977, p. 181). 슐라이어마허는 철학적 해석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해석학적 성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주창한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은 가다머에 의해 해석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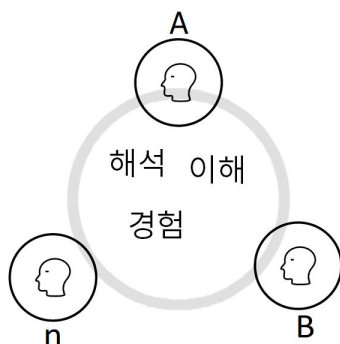
존재론적 전환을 하며 완성되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해석학적 성찰과 비판에 여전히 핵심적인 개념이다.

해석학적 순환은, 어떤 텍스트의 일부와 전체에 대한 이해는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며, 이해는 그 전체에 대한 일부를 이미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Stolze, 2010, p. 143). 부연하면, 나는 내가 이미 그 일부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tolze, 2012, p. 32). 해석학에서 완전한 지식은 늘 순환적이다. 부분은 오직 전체를 통해서만, 그리고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Thielton, 1992, p. 221). 이해는 언제나 선순환 관계 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부분과 전체는 서로 순환하는 의존관계에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언어에 대해 일부라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전이해(preunderstanding)라고 하는데 해석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즉 부분적 이해에서 보다 점진적인 이해로의 전환을 통해, 슐라이어마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지식(complete knowledge)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Thielton, 1992, p. 221).

그림 1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

(Schleiermacher's Hermeneutic circle: illustration my own)



이와 같은 등가의 해석학(hermeneutics of equivalence), 곧 완전한 지식이 의미하는 바는 가다머와 스타이너가 지적했듯이 원문보다 더 정확한 원문이며 본래의 의미이다(Gadamer, 1975, p. 158; Steiner, 1975, p. 318). 슬라이어마허의 원본지향적 해석학의 이상은 가다머에 의해 비판을 받았지만(Gadamer, 1975, pp. 158-160), 해석학을 양분하고 있는 방법론적 해석학에서는 여전히 기본적 이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Palmer, 1969). 슬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을 도해로 제시하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위 도해는 저자 고유의 창작임을 밝힌다(김희준, 2025, p. 9).

<그림 1>에서 가운데 위치한 큰 원은 특정한 이해에 대한 가상의 총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A, B, n은 불특정 개인이다. 이 도해는 사람마다 특정한 이해나 해석, 그리고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가령 A는 특정 이해에 대해 비교적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n의 경우는 이 특정 이해와 접점이 거의 없다. 즉, 이 특정 이해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적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림 1>에는 이러한 이해 공유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이해에 대해 최소한의 접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 있다. 해석학적 순환은 바로 이 접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 접점이 의미하는 해석학적 순환은 모든 해석학 이론과 성찰에 기본 토대가 되는 개념이다. 해석학적 순환의 명제적 함의는, 이 범주 외에 좋은 이해(good understanding)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Stolze, 2022, p. 114).

슬라이어마허는 자신의 해석학적 순환을 기반으로 더 완벽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자의 사고나 생각, 느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감정입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Palmer, 1969, p. 91; Thiselton, 1992, p. 223). 이는 가다머와 같은 해석학자들이나 스피버나 윌슨 같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Sperber & Wilson, 1986, p. 1). 그러나 슬라이어마허에 대한 티즐턴의 변호는 특기할만하다.

우선, 슬라이어마허는 직관적인 인식에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발견된다. 또 하나, 슬라이어마허는 우리가 인생 경험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슐라이어마허의 주장은 단순히 심리적인 해석원리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Thiselton, 1992, p. 223; 저자 번역)

티즐턴의 변호는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 원리에 부합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부라도 미리 알고 있어야만 그 새로운 이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새로운 이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슐라이어마허는 해석학적 순환의 방법론적 범주로 감정이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이 지향하는 저자의 본래 의미 재건은 낭만주의 해석학 이후 지금까지 방법론적 해석학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이다(Gadamer, 1975, p. 158). 그러나 가다머는 슐라이어마허의 소위 재건 해석학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공헌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① 한 작품의 원 상황을 재건한다 해도 과연 그것이 우리가 찾는 작품의 의미가 맞냐는 것과, ② 이해를 원문의 재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고 있다(Gadamer, 1975, pp. 159-160). 즉, 우리가 과연 과거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원문을 다시 복원한다 해도 그 인위적인 복원을 통해 얻은 이해는 새로운 청중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원된 의미는 살아있는 이해가 아니라 죽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 가다머는 원저자나 원텍스트의 의미나 의도를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다는 슐라이어마허의 주장에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Gadamer, 1975, pp. 365-366).

가다머는 번역(translation)을 모든 인간 해석의 정점에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라고 말한 바 있다(Gadamer, 1975, p. 386). 가다머가 번역, 더 넓게는 통번역을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라고 말하는 바의 의미는, 통번역이 단순한 정보나 의미의 전달이 아니라 ‘해석된’ 것이라는 뜻으로 사료된다(Gadamer 1975, p. 386). 가다머와 슐라이어마허는 결국 해석학의 양대 진영인 존재론과 방법론을 대변하고 있는데(Palmer, 1969, pp. 46-48), 가다머는 해석의 필연성을, 슐라이어마허는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론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두 양대 해석학을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공통의 기반하에

서 볼 때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해석학을 통번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고찰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통번역학의 실천적인 입장에서 볼 때 통번역적 해석학이 해석학을 위한 해석학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교통역의 실천적 영역과는 무관해 보이는 해석학의 양대 입장을 소개한 이유는 설교통역이 설교와 통역이라는 두 가지 해석학적 활동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가 통번역적 해석학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은 해석학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이해(understanding)를 해석(interpretation)의 결과로 보는 가다머의 주장은 “모든 이해는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스타이너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동시에 구트가 주장하는 통번역의 해석적 용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이기 때문이다(Steiner, 1975, p. 295).

### 3.2 스타이너의 해석학적 제안과 가다머의 지평융합

스타이너가 통번역학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야심차게 제시한 해석학적 제안(Hermeneutic motion)은 그의 저서 『After Babel』의 제5장에 실려 있는데, 18세기 이래 번역이론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Munday, 2001, p. 251). 특히 해석학적 제안의 네 단계인 확신-공략-병합-복원(Trust-Aggression-Incorporation-Compensation)은 평형(equilibrium)을 통번역 작업의 최종적인 해석학적 원리와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창적인 발상으로 사료된다(Kharmandar, 2018, p. 87). 스타이너가 그의 해석학적 제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통번역 과정 안에 개념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네 단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Steiner, 1975, p. 319). 이에 본고는 스타이너의 해석학적 제안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통번역적 해석학 및 본고의 주제인 설교통역의 해석학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단계는 ‘확신’(trust)의 단계이다. 스타이너가 주장하는 확신 단계는 통번역사의 해석학적 순환에서 전제되고 있는 전이해나 이해 접점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정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타이너는 이 첫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통번역의] 첫 단계는 확신이다. [...] 이 확신은 [...] 엄밀하게는, [저] 이질적인 텍스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자, 그 텍스트를 대하는 ‘진지함’에 대한 확신이다(Steiner, 1975, pp. 312; 저자 번역).

해석학적 제안의 첫 단계는 스타이너에 의하면 ‘믿음을 투자하는’ 단계로서 선행하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다소 미스터리한 이 ‘확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스타이너는 이 기본 진술 위에 부연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확신은 즉흥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복잡한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이 확신은 세계가 논리적이며, 형식적으로 서로 다른 체계 안에도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자, 유사한 것과 평행된 것이 존재한다는 현상학적 가정에서 나온 실용적인 관행이다. [...] 이 극단적인 관용과 타자에 대한 확신은 세계를 상징으로 보거나 어떤 것이 다른 것을 표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인간의 습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며 [...] (Steiner, 1975, p. 312; 저자 번역).

스타이너가 첫 단계인 ‘확신’에 대해 주장하는 기반은 결국 세계 내에 존재하는 논리성과 의미에 대한 믿음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인도 인정하듯이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인간이 세상을 해석해 온 전통이나 원리라는 의미로 사료된다.

해석학적 제안의 두 번째 단계는 ‘공략’(aggression)이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스타이너의 기본적인 메타포는 광산에서 무언가를 발굴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그의 기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확신 뒤에는 공략 단계가 필요하다. [...] 하이데거의 분석이 타당한데, 그는 이해는 행동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자 공격적으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라며 이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현존재로 돌려놓았다. 현존재는 ‘거기에 있는’ 것이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해되었을 때, 즉 번역되었을 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된다. [...] 우리는 이해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보다 존재에 관한 것이라는 하이데거의 주

장, 즉 ‘존재는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약간 바꾸어서 보다 단순하고 제한적인 공리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즉, 모든 이해의 행동은 다른 실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번역하는) 것이라고 해보면 어떨까? (Steiner, 1975, pp. 313-314; 저자 번역)

인식이나 이해를 공격이나 폭력의 일환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이데거 읽기로부터 술라이어마허가 이상으로 본 “원본에 대한 강렬한 지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Lavoie, 1990, p. 1).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원본은 본래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하이데거 읽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스타이너는 제롬(St. Jerome)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다.

번역은 번역가가 집으로 데려온 포로라는 제롬의 유명한 비유를 보면, 우리는 암호를 ‘부수어 깬다’. 즉, 해독이라는 것은 잘라내고 생명이 담겨 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다. [...] 텍스트는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 별로 없고 양상한 모습이다(Steiner, 1975, p. 314; 저자 번역).

스타이너 해석학의 세 번째 단계는 ‘병합’(incorporation)의 단계인데 확신을 가지고 공략하여 얻어낸 의미가 체화되는 단계이다. 원문의 이질성을 그대로 두었거나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바꾸었든 간에 이 병합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의미를 얻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를 차지한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온다는 점이다(Steiner, 1975, pp. 314-315). 그것은 이해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Steiner, 1975, p. 314).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바라는 하이데거 철학의 의미는 우리 실존이 이해의 과정에서 수정된다는 의미이다. 그 어떤 언어도, 전통적 상징이나 문화도, 변화의 위험 없이는 도입되지 않는다. [...] [결국,] 이 병합의 결과 우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 번역을 통해 우리는 수단을 얻게 된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과 원천을 병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복되거나 장어를 입을 수 있다(Steiner, 1975, p. 315; 저자 번역).

이러한 병합 단계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은 해석학적 제안의 마지막 단계

를 요청하고 있다(Steiner, 1975, p. 316). 네 번째 단계인 ‘복원’(compensation)은 확신과 공약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나 이해를 자기 것으로 병합하는 전 과정에서 일어난 인식론적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통번역 윤리의 정점이 된다.

선형적 행동에서 나온 확신은 불균형을 가져온다. 우리는 텍스트를 ‘굽어보아야’(lean/bend forward) 한다. 우리는 인지적으로 대상을 포위하고 공격한다. 포획물을 집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타자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 우리 자신에게 덧붙일 때 인지 체계 안의 균형이 무너진다. 인지 체계는 균형을 상실했고 해석학은 복원을 해야 한다. 그 해석학이 맞다면 이 교환에 개입하고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이 과정은 통번역 윤리와 직업의 핵심이다(Steiner, 1975, p. 316; 저자 번역).

스타이너의 주장은 다분히 은유적이며 번역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첫 단계인 확신부터 우리 인식 체계에는 불균형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텍스트를 들여다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고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옮기는 등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각적이다. 이것은 인식과 해석을 물물교환이나 채집, 약탈 등으로 보는 스타이너의 기본 인지 체계가 이런 시각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복원 노력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을까? 스타이너에게 있어서 복원의 목표는 충실성(fidelity)으로 수렴된다. 스타이너는 슬라이어마허와는 달리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 이해가 존재론적 차원의 활동이라는 수정 노선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복원, 즉, 원본과 동일한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충실성을 통해 번역의 윤리적 의무는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보다 원문을 더 잘 이해하려는 슬라이어마허의 해석학 [...] 그러나 완전한 복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이상 덕분에 해석학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명확해진다. 이 이상을 통해서만 우리는 충실성이라는 핵심 개념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충실성은 직역주의

도, 핵심 논지를 전달하는 기술적 장치도 아니다[...]. 충실성은 윤리적인 것이며, 완전히 경제적인 것이다(Steiner, 1975, p. 318; 저자 번역).

지금까지 개괄해 본 스타이너의 해석학적 제안에서 백미는 네 번째 단계인 ‘복원’으로 사료된다. 원본과 통번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통번역사뿐이다. 따라서 통번역사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불균형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스타이너는 통번역사의 윤리적 의무라고 말했다. 결국 스타이너는 통번역이 단순히 기계적인 과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완성은 해석을 통해 윤리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통번역 이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통번역 과정에 해석학적 네 단계가 상존한다는 스타이너의 주장은 슐라이어마허가 주장한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성찰이며 동시에 가다머의 해석학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 가다머는 인간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해에 다다르고자 하는 일상적 상황을 해석학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Gadamer, 1975, p. 387). 즉, 스타이너가 말한 상존하는 해석학의 네 단계는 일상이 해석학의 장이라고 말한 가다머와 일맥상통한다. 만약 우리가 이 두 학자의 제안을 확대해 볼 수 있다면, 통번역은 해석학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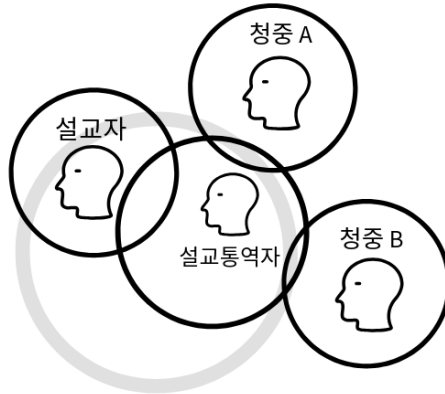
스타이너의 해석학이나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번역은 원문과 번역문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 간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스타이너가 평형을 통해 복원하려고 한 원문의 세계는 원문을 해석하여 탄생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이다. 또한 슐라이어마허가 복원하려고 했던 원본 역시 원본보다 원본을 더 잘 이해한 또 하나의 세계인 것이다. 스타이너는 충실성을 통해 이 이상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스타이너 이전에 가다머에 의해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가다머는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을 더 발전시키며 서로 이질적인 이 두 개의 세계 곧 서로 다른 이해가 만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지평융합이라고 한다(Gadamer, 1975, p. 305).

슬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이 해석이 시작되는 접점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가다머의 지평융합은 이해가 일방적인 탐구 활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해가 만나는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즉, 지평융합은 서로 다른 두 이해 간에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 만남을 통해 이해가 융합 및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평융합은 두 단계의 그래픽을 통해 설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2>와 <그림 3>은 <그림 1>과 마찬가지로 모두 저자의 고유한 창작물임을 밝힌다(김희준, 2025, pp. 32-33).

그림 2

설교통역 상황에서의 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c circle in the process of sermon interpreting; illustration my own)



<그림 2>를 통해 우리는 설교자와 설교통역사, 그리고 청중이 앞에서 언급한 해석학적 순환 원리에 따라 상호 간에 최소한의 이해 접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교통역에서는 설교통역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림 2>에서 드러나 있듯이 설교자의 이해에 직접적인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통역사가 없다면 청중들은 막연한 이해나 선지식 외에 설교자의 이해 지평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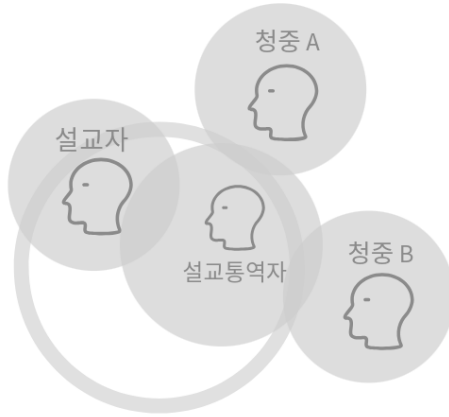
서 성공적인 설교통역의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이 모든 접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설교자와 설교통역사, 청중의 이해가 하나의 이해로 통합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다머가 주장하는 지평융합의 의미이다.

<그림 3>은 지평융합의 결과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들]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나 이해로 통합되는지 보여준다. 가다머의 지평융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번역을 중심으로 청중과 연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통합적 이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새로운 세계는 본래 없었던 것이지만 통번역이라는 인지적, 추론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Brockman & Matson, 1995, p. 199).

그림 3

설교통역 상황에서의 지평융합

(Fusion of horizons in the process of sermon interpreting: illustration my own)



### 3.3 탈언어화의 해석학적 함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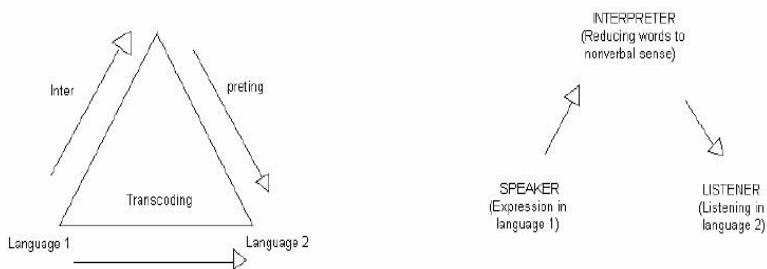
통번역학에서 스타이너 이전에도 해석학적 탐구는 존재했다. 통번역학에서 실용적, 방법론적 차원의 해석학적 시도는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68)로 대표되는 파리학파의 소위 ‘탈언어화’(deverbalization) 가설이다. 우리는 술라이어마허와 가다머, 그리고 스타이너로 이어지는 주류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 탈언어화 가설의 해석학적 타당성에 대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탈언어화에서 말하는 의미(sense)는 ST(Source Text, 출발어 텍스트)의 언어적 틀 안에 들어 있는 ‘논지’를 말한다. 이 의미는 낱말도 절도 아닌 담론 내 존재하는 짧은 의식 상태이다(Stolze et al., 2015, pp. 18-19). 그러나 탈언어화는 “실용적인 교수법의 기능” 외에 탈언어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Pym, 2010, p. 17).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해석학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셀레스코비치는 인간의 생각이 영어나 한국어 같은 외적 언어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Zhang, 2010, p. 219). 즉, 셀레스코비치는 ‘생각’을 지구상에 수천 개로 나뉘어 있는 개별 언어와 달리 ‘보편 언어’로 보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통역사는 ST에서 의미를 추출할 때 이 보편 언어에 의존하고, 다시 이 보편 언어를 통해 TT(Target Text, 도착어 텍스트)로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해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셀레스코비치의 탈언어화 과정(Choi, J., 2003, p. 9; Seleskovitch & Lederer, 1984, p. 185)



<그림 4>를 보면 언어1에서 언어2로의 이행이 중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중간 과정이 셀레스코비치가 생각한 보편 언어로부터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다. 탈언어화 과정에서 셀레스코비치가 존재한다고 믿은 의미의 보고이자 보편 언어라는 가상의 세계는 ST와 TT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언어적 틀을 벗어나

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때때로 외국어 연사의 발화를 모두 단어 대 단어로 옮겨 놓아도 그 전체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Seleskovitch, 1978, p. 21). 셀레스코비치가 말하는 의미는 언어의 범위를 벗어나며 인간의 생각을 언어적 의미로부터 해방시켜 줄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Chernov, 2004, pp. 39-41).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의 보고로서의 가상의 보편 언어는 해석학적으로는 불필요한 개념이다. 탈언어화 과정을 통해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것은 통역사가 실질적인 지평을 자기 자신의 언어로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Gile, 2009, p. 239). 이때 통번역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구체적인 언어이지 가상의 언어일 수는 없다. 즉, 통번역사가 구사하는 자신의 언어는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언어일 뿐 가상의 언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Gadamer, 1975, p. 468). 가상의 언어를 전제로 한 통번역이나 해석학은 불가능하다. 스타이너가 평형을 이상적인 상태로 본 통번역의 해석학적 과정 역시 적극적인 해석이 개입된 언어일 뿐 가상의 언어 세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언어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가상의 언어가 아니라, 해석(interpretation)이다(Steiner, 1975, p. 28). 따라서 파리학과와 탈언어화를 가다머와 스타이너의 해석학적 표현으로 수정하자면, 탈언어화는 언어의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다는 의미이지 가상의 보편적 의미 세계를 요구하는 과정이 아니다. 즉, 언어의 사전적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해석학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가다머나 스타이너, 그리고 구트나 스퍼버, 윌슨 모두 의미의 이해나 전달은 해석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셀레스코비치의 탈언어화는 의미를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 의존하는 대신 의미가 해석의 산물이라는 가다머 등의 해석학적 입장으로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쟁점에 대한 사례 연구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번역학에서의 해석학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드러난 것은 통역사의 역할이 가다머가 제시하는 지평융합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즉, 통역사는 ST와 TT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가다머의 지평융합을 설교자와 청중 간의 실질적 이해 세계를 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세계를 창출하는 설교통역사

의 해석학적 역할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평융합의 방법론적 토대로 구트의 해석적 용법을 차용하고자 한다.

## 4. 설교통역사의 해석학적 역할

### 4.1 설교통역의 해석적 용법

설교통역이 필요한 청중은 원문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길은 설교통역사가 ‘해석한’ 원문을 접하는 것뿐이다. 청중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설교자와 설교통역사의 역할은 동일하다. 설교자에 이어 설교통역사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해석적으로 유사한’ 하나의 메시지이다. 설교와 설교통역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활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활동이 해석적으로 유사한 혹은 사실상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구트의 해석적 용법은 단순히 의미가 해석의 결과라는 명제적 주장만이 아니라, 설교와 설교통역 같은 서로 다른 이질적 활동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어떻게 원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로서 제시된 것이다. 구트가 주장하는 통번역의 해석적 용법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보다 쉽게 설명 가능하다. 가령,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임무를 전달한 후 그것을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달받은 그 임무를 다시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설명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해석이 개입하게 된다. 즉, 해석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해나 의미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파리학과와 탈언어화역시 구트의 해석적 용법으로 설명 및 대체 가능하다. 단어 대 단어로 해결되지 않는 언어적 차원의 문제는 가상의 의미 세계를 상정할 필요 없이 통번역을 언어의 해석적 용법이라고 보는 구트의 주장으로도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이다.

#### 4.2 해석적 용법의 방법론적 원리

구트가 스퍼버와 윌슨의 이론을 원용하여 주장한 통번역의 해석적 용법은 통번역을 의사소통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다(Gutt, 2000, p. 22). 해석학의 주요 범주도 역시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구트의 해석적 용법은 가다머의 해석학과 일맥상통한다(Gadamer, 1975, p. 525). 이와 같은 구트의 해석적 용법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이자 방법론적 토대는 소위 타당성(relevance) 원리이다. 타당성 이론은 해석자의 추론(inferential activity)이 메시지 이해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Yus, 2012, p. 2). 따라서 스퍼버와 윌슨의 타당성 이론은 해석을 이해의 필수 조건으로 보는 가다머나 스타이너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즉, 이해는 해석이며, 번역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Steiner, 1975, p. xii). 다시 말해서, 번역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나와 타인 간의 이질적인 세계를 넘어설 수 없다(Włodarczyk et al., 2020, p. 52).

타당성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모든 지시적(ostensive) 의사소통은 최적의 타당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Sperber & Wilson, 1986, p. 158; Gutt, 2000, pp. 31-32). 타당성의 개념은,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는 크고 이해 노력은 적은 것을 의미한다(Gutt, 2011, p. 3). 즉, 한 해석의 타당성은 청중에게 최적의 타당성을 의도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보장되는 것이다(Sperber & Wilson, 1986, p. 166)<sup>4)</sup>. 이 타당성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구트가 언급한 대로, 청자는 자신의 첫 해석이 화자가 의도한 해석이라고 가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Gutt, 2000, p. 32).

이와 같은 구트의 타당성 원리를 통해 우리는 타당성 원리에 봉사하는 방법론적 범주가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를 요청받게 된다. 청자가 최소의 이해 노력으로 맨 처음 이해한 것이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면 통번역사는 이와 같은 청중의 타당성 요구에 부합하는 통역 결과를 산출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타당성 원리를 따르자면, 설교통역사는 청중이 최소의 노력으로 이해한 최초의 이해가 설교자의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를 통해 우리는 타당성 원리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론적 범주를 제시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받게 된다.

4) 이에 대한 예시는 베누티(2000, pp. 376-377)를 참조하라.

### 4.3 타당성 원리의 방법론적 범주

본고는 구트의 타당성 원리가 요구하는 방법론적 범주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고의 목적은 설교통역사의 해석학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각 방법론적 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설교통역 사례 연구는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주제부 전개’에 국한해서 간략한 방법론적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주제부 전개(Thematic development)
- ② 통역의 길이: 합리화와 명시화  
(Overall length: rationalization & explication)
- ③ 결속성(Cohesion)
- ④ 충실성(Fidelity)
- ⑤ 수사적 장치(Rhetorical devices)
- ⑥ 기타 해석적 요소(Other variables)

#### 4.3.1 주제부 전개

주제부(theme)는 텍스트의 의미(textual meaning)를 나타내며(최경희, 2020, p. 196), 해당 절의 첫 구성성분이자 절의 방향(angle)을 나타낸다(최경희, 2017, p. 258). 주제부가 중요한 이유는, 화자는 특정한 전환점이 될 단어를 발화하면서 문장을 시작하기 때문이다(Halliday, 2008, p. 105). 할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에 따르면, 텍스트는 문법적 단위(a grammar unit)가 아니라 의미적 단위(a semantic unit)이다(Halliday & Hasan, 1976, pp. 1-2). 즉, 텍스트는 그 문장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되거나 하나의 동일한 상위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 비로소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원지, 2023, p. 150). 주제부 전개와 관련한 사례로 1973 빌리 그래함 방한 폐회 설교의 첫 대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sup>5)</sup>.

5) 현재 이 설교의 영상은 인터넷 상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에 한 예를 제시하였다.

번호	빌리 그래함 설교	김장환 통역
1	22 years ago I was here in Korea.	이십이 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	It was a Christmas time.	그때 성탄절입니다.
3	And it was very cold.	굉장히 추웠습니다.
4	I've never been so cold in all my life.	제 일생동안 그렇게 추워 본 적은 없었습니다.
5	And I toured along what is now DMZ.	지금 저 삼팔선에 있는 그때 거기를 한 번 방문해봤습니다.
6	I was in Heartbreak Ridge.	거기 그때 저는 그 일선 최전방 산에 가봤습니다.
7	And on Heartbreak Ridge there were twelve soldiers.	그 최전방 산에 열두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8	They were American soldiers huddled together.	미국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9	An enemy sneaked through the lines.	바로 거기 일선에 그 적군 한 사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10	He threw a hand grenade in the middle of them.	거기에 그 조그마한 폭발물을 던졌습니다.
11	It was going to go off in three seconds.	삼 초 후에 그 수류탄이 터질 직전입니다.

설교의 첫 마디인 “22 years ago”를 보면 그가 한국전쟁 중에 한국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years ago”는 할러데이와 하산의 이론을 따르자면 주제부이며, 여기에 빌리 그래함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부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빌리 그래함의 의도는 이십이 년 전 “한국전쟁 때 나도 한국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22’라는 숫자가 주제부에 있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주제부를 통해 빌리 그래함은 11번까지 진행되는 약 1분 52초간의 설교 내용 전체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즉, 한국전 당시였던 이십이 년 전 한국에 와 있던 빌리 그래함은 삼팔선 너머로 청중을 데려가 방금 수류탄이 떨어진 참호 안의 비참한 광경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만약 김장환이 이 주제부의 함의를 명확하게 인지했다면 충실성 높은 통역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제부 전개 의도에 대한 파악이 소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sup>6)</sup> 빌리 그레함의 지금 청중을 1951년으로 소환하여 한국전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개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통역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숫자만으로는 빌리 그레함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 첫 문장의 주제부 전개 파악이 미진하게 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파생하게 된다. 우선 시제 혼란을 들 수 있다. 5번 설교를 보면, 빌리 그레함은 1951년에 자신이 갔던 곳을 DMZ, 즉, ‘지금은 휴전선이 된 곳’(what is now DMZ)이라는 73년 당시에 적절한 시제를 추가하여 부연 설명했다. 자신이 1951년에 갔던 곳이 1973년 지금은 DMZ 부근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장환은 ‘now’로 인한 원문간섭의 영향을 받아 5번에 대한 통역을 ‘지금’으로 시작하면서 1번에서 시작된 주제부의 시제를 1973년 현재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다음 6번 설교에 대한 통역에서 시제를 ‘그때’로 바꾸어 보지만 5번 통역의 주제부에서 이미 전환된 시제를 다음 문장에서 효과적으로 바꿀 수 없었다. 5번 통역의 주제부가 이미 시제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청중들이 듣기에는 빌리 그레함이 1951년에 거기에 갔는지, 1973년 방한 때 가보았는지, 아니면 1951년에 갔던 곳을 1973년에 다시 또 한 번 갔다 왔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6번 설교에 대한 통역의 주제부를 ‘거기 그때’로 시작하면서 시제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시제 혼란과 더불어 방문 횟수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불명확해지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된다. ‘거기 그때’라는 회고조의 표현으로 주제부를 형성하고, ‘방문해봤습니다’라는 표현까지 덧붙임으로써 1973년 재방문 때 그곳을 다시 갔던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설교 첫 문장의 주제부 파악이 미진하

6) 설교 첫 문장의 주제부 전개 의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22 years ago’를 ‘이십이 년 전에’로, 즉 단어 대 단어로 치환하는 어휘적 차원의 접근법을 사용한 점에서 확인된다. ‘이십이 년 전’이 의미하는 바가 ‘한국전 당시에’라는 점이 부각되었다면 청중의 이해가 훨씬 용이해지고, 타당성 원리의 측면에서 보다 충실한 통역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부 전개는 할러데이의 주장처럼 텍스트 차원의 문제이며 동시에 해석학적 고려 대상이다. 또한 ‘번역은 예술’이라는 슬라이어마허의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설교통역 역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타당성에 기반한 책임있는 통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Stolze, 2017, p. 32).

게 시작하면서 이후 통역의 주제부에 혼란이 오고 궁극적으로는 청중의 이해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주제부 전개 파악의 실패는 타당성의 오류로 이어지고 청중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3.2 통역의 길이: 합리화와 명시화

통번역은 원문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teiner, 1975, p. 291, 316; Berman, 1985, p. 282). 그 까닭은 합리화와 명시화의 목적 때문이다(Berman, 1985, p. 282). 즉, 문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길이가 약간 늘어나는 것이다(Frankenberg-Garcia, 2009, p. 15). 명시화는 원문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으려는 경향으로서, 추가설명을 하고, 의미를 제시하며, 연결어를 보충하여서 논리적 흐름을 높여서 가독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다(Shuttleworth & Cowie, 1997, p. 55). 번역에서 길이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번역이 언어적 구조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구조의 차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Nida, 1969, p. 163). 그 결과 번역은 필연적으로 원문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짧고 명료한 번역도 존재한다. 번역의 경우 문장의 길이는 번역 품질의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Yim, 2024, p. 70). 이러한 길이 차이는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어휘나 문법적 차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nkenberg-Garcia, 2009, p. 15). 따라서 설교통역사는 타당성에 봉사할 수 있는 한 통역의 길이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으나 최소의 길이로 최대의 타당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3.3 결속성

앞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텍스트는 의미의 기본 단위이다(Halliday & Hasan, 1976, p. 25). 반면 결속성은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며 텍스트를 하나의 텍스트로 규정해주는 의미 관계다(Halliday & Hasan, 1976, p. 4). 또한 결속성은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는 실제 단어나 표현들이 갖고 있는 표면 관계다(Baker, 2011, p. 180). 결속성은 모든 언어마다 고유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서, 담화 분석이나 텍스트 언어학의 유용한 요소이다(Newmark, 1987, p.

295). 결속성은 문학번역에서는 등가의 관점으로 이해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Arhire, 2017, p. 155). 영어에서 결속성을 유지해주는 주요 장치는 지시(reference), 대체(substitution), 생략(ellipsis), 연결어(conjunction), 어휘결속성<sup>7)</sup>(lexical cohesion)의 다섯 가지로 알려져 있다(Halliday & Hasan, 1976). 영어와 한국어의 결속성 유지 장치는 동일하지 않다. 가령, 영어는 대체 장치를 사용하여 결속성을 유지하지만 한국어로 바꿀 때는 반복을 통해 이 영어의 결속성을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본고에서 인용된 스타이너의 원문 역시 국어에 적절한 결속성 장치를 활용하여 번역한 바 있다. 설교통역에서도 결속성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청중의 이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결속성은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부연하면, 타당성은 구트의 해석적 용법의 전제이며 모든 정통 해석학의 입장을 뒷받침할 방법론적 토대로 제시된 것이다.

#### 4.3.4 충실성

충실성은 통번역사에서 고대 이래 가장 오래된 문제로서 17세기에 와서야 단어 대 단어가 아닌 의미가 충실성의 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Kelly, 1979, p. 105). 충실성의 문제는 통번역 품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서(Gile, 2009, p. 54), 번역문이 원문 대비 얼마나 정확하냐를 묻는 것이다(Levý, 2011, p. 83). 스키포스 이론에서는 충실성 규칙(fidelity rule)을 제시하면서 원문과 번역물(translatum) 사이에 응집성(coherence)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Munday, 2001, p. 79). 충실성은 언어와 문화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 통번역사는 원문과 번역 사이에서 정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Gile, 2009, p. 22). 이러한 이유로 원문과의 필연적인 차이를 창의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충실성(abusive fidelity)에 대한 주장도 있다(Lewis, 1985, p. 271). 텍스트의 일부분이나 전체에서 충실성을 가늠할 때 그 기준은 내용(meaning)과 형식

7) 어휘결속성은 어휘로 표현된 결속성, 즉 특정한 어휘들이 만들어 낸 의미론적 관계를 일컫는다(Stotsky, 1983, p. 430). 어휘결속성의 예로 동의어 관계(synonymy), 반의어(anonymy), 하의관계(hyponymy)를 들 수 있는데(Cerban, 2010), 반복(reiteration)이나 연관어(collocation) 형태로 나타난다(Mahlberg, 2006, p. 364).

(form)이 된다(Levy, 2011, p. 105). 또 다른 기준으로는, 유창한 표현(*fluent patterns*)이나 사용가치(*use-value*)를 들 수 있다(Lewis, 1985, p. 270).

충실성은 번역가능성(*translability*)이나 등가(*equivalence*)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Gile, 2009, p. 54; Gutt, 2000, pp. 9-10). 동일한 언어 안에서 서로 다른 문장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르게 표현된 TT도 ST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Gile, 2009, pp. 52-78). 앞서서도 언급한 바대로, 스타이너는 충실성에 대해, 그것은 직역주의도 아니고 문장의 혼(*spirit*)을 전달하는 수단도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에게 충실성은 윤리적인 것이며 경제적인 것이었다. 충실성은 등가의 자리에 새로운 기준이 되어 저자에 대한 충실성, 그 밖에 의미나 의도, 기능에 대한 충실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Pym, 2010, p. 21). 이에 따라 충실성은 등가의 확대된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Gile, 2009, p. 52). 또한 충실성에 등가가 포함된다면, 충실성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뿐만 아니라 청중에 대한 충실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 충실성에 대한 기준 역시 타당성으로 보면 충실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타당성의 지표는 해석적으로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 4.3.5 수사적 장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수사학자들은 청중을 설득하려면 청중의 상식을 새로운 상황(*topoi*)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Valentino et al., 2017, p. 1). 즉, 청중은 자신들의 견해나 정형화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신념이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설교는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호소성 텍스트이고(신혜인, 2019, p. 69), 호소 중심적(*appeal-focused*) 텍스트로 분류될 수 있으며(Reiss, 2014, p. 26), 교육적(*instruction*) 텍스트이자(Zydatiss, 1983), 정보(*information*) 전달 및 기능적(*operative*) 유형의 텍스트이다(Munday, 2001, pp. 74-75). 설교는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불 수사법과 연관을 맺고 있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설교는 이미 수사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Sypert, 2015, pp. 31-32). 따라서 설교통역사는 수사적 장치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설교는 수사적인 기교를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타입이기 때문이다. 설교

를 포함하여, 의미가 있는 곳에는 설득이 있고, 설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수사법이 따라오게 마련이다(Burke, 1969, p. 172). 텍스트의 수사학적 목적은 번역의 적절성(appropriateness)을 판단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Hatim, 1990, p. 190).

더 나아가 해석학과 수사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석학적인 것은 동시에 수사학적인 것이다(Carlos, 2009, p. 335). 즉, 통번역 자체도 수사학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다(Davila-Montes, 2017, p. 1; France, 2005, p. 261). 번역이 번역처럼 읽히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오랜 관행이 그것인데, 통번역이 수사학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France, 2005, p. 259). 특히 원문과 청중의 언어 사이에 간극이 클 때 통번역자는 수사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Carlos, 2009, p. 335). 이에 따라 설교통역사는 자신의 통역 속에 담긴 수사적 장치와 수사학적 상황에 대해 의식할 필요가 있다. 수사학적으로 자연스럽고 명쾌한 설교통역은 청중의 이해와 통역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 4.3.6 기타 해석적 요소

설교통역을 해석적 용법으로 보는 본고의 관점을 따르자면, 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다섯 가지 범주 외에도 다양하다고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기타 해석적 요소로서 ① 교리적 해석 ② 문법구조 전환이나 어감조절과 같은 원문간접 관련 요소, 그리고 ③ 인지환경 해석의 세 가지 추가적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령, 인지환경(cognitive environment)은 ‘세계에 대한 가정’(assumptions about the world)을 의미한다(Gutt, 2000, p. 27). 인지환경은 이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구트에 의하면, 의미는 정보(stimulus)만이 아니라 정보와 인지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Gutt, 2000, p. 139). 즉, 정보만 전달한다고 해서 의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와 청중의 인지환경이 다르면 설교자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해도 의미가 청중의 이해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Gutt, 2000, pp. 139-140). 이는 앞서 주제부 전개에 대한 1973 빌리 그래함 설교통역 사례 연구로도 확인된 바 있다. 인지환경은 해석학적 표현을 빌리

자면, 설교자와 청중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전이해이다. 이 두 개의 이질적인 전이해가 만나려면 또 다른 새로운 접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설교통역사는 서로 다른 인지환경이 만날 수 있는 통합적 전이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을 발전시킨 가다머의 지평융합 모델을 통해 설교통역사는 이질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평융합은 가다머의 고유한 주장이며 설교통역에 국한해 적용해 보았을 때, 설교자와 청중의 이해가 만났을 때 이 만남이 어떻게 통합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이해로 발전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모델이다. 또한 구트의 해석적 용법을 가다머의 지평융합과 결합하면 우리는 해석학적 방법론의 다양한 범주를 찾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받게 된다. 구트의 해석적 용법은 스타이너가 평형을 이상으로 본 해석학적 통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복원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며, 설교통역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의 적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동시에 그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된 것이다. 충실한 이해와 전달에 대한 해석학적 이상은 슐라이어마허나 가다머, 그리고 스타이너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구트가 해석적 용법을 통번역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sup>8)</sup>.

본래 이 해석적 용법의 방법론적 원리는 스퍼버와 윌슨이 주창한 타당성 원리이다. 타당성 원리만으로도 모든 통번역 일반 이론을 통합·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Frawley, 1992, p. 516).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타당성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원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오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퍼버와 윌슨이 제시하고 구트가 통번역에 원용한 타당성 개념은 이해가 언어를 해독하는 것

8) 구트의 독창성과 공헌은 스퍼버와 윌슨에 의해서도 확인된다(Sperber & Wilson, 1986, p. 259).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고, 발화(utterance)는 언어적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적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 준 것이다. 또한 타당성은 가다머나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스타이너 등의 해석학 이론과의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구트의 통번역의 해석적 용법이 시사하는 바는 다분히 해석학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설교통역의 방법론적 원리로 차용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사료된다. 앞서 연구질문에서 제시한 가다머나 스타이너가 제시한 해석학의 구체적 함의는 구트가 주장한 대로 설교통역이 해석적 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자 한다. 또한 설교통역사의 역할은 가다머의 해석학적 이상인 지평융합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앞으로 타당성 원리에 부합되는 방법론적 범주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타당한 해석을 위한 설교통역 및 통번역적 해석학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빌리 그래함 1973 방한 설교 영상 예: <https://youtu.be/1GxSjLD3wt0>

### <2차 자료>

- 김희준. (2025). 설교통역의 해석학적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 신혜인. (2015). 한국교회 설교통역의 특징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6(2), 87-103.
- 신혜인. (2019). 설교통역의 충실성에 관한 고찰 —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 전도대회 통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67-89.
- 이원지. (2023). 결속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의 개념 및 관계. 텍스트 언어학, 55, 149-177.
- 최경희. (2017). 학부 한영번역에서의 주제부 전개방식(Thematic development)의 사용: 문제 진단 및 전문가 번역과의 비교. 번역학연구, 18(5),

- 253-276.
- 최경희. (2020). 통역사 인증시험시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 — 호주 나티 순차 통역 시험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183-214.
- Arhire, M. (2017). Cohesive devices in translator training: A study based on a Romanian translational learner corpus. *Meta*, 62(1), 155-177.
- Baker, M. (2011). *In other words*. Routledge.
- Barth, K. (1966). *Homiletics*. J. Knox Press.
- Berman, A. (1985). Translation and the trials of the foreign.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 276-289). Routledge.
- Brockman, J., & Matson, K. (1995). *How things are: A science tool-kit for the mind*. William Morrow and Co..
- Burke, K. (1969). *A rhetoric of motiv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ttrick, D. (1987).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Fortress Press.
- Carlos C. (2009). Translation as rhetoric: Edward Jerningham's "Impenitence" (1800). *Rhetoric Review*, 28(3), 335-351.
- Cerban, M., (2010). Lexical cohesion: Aspects of collocation using Halliday and Hasan's systemic model of cohesion. *Translation Studies: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iews, Vol. 8*, 1-4.
- Chernov, G. V. (2004). *Inference and anticipa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John Benjamins.
- Choi Jungwha, (2003). The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 and its current applications. *Interpretation Studies, No. 3*, 1-15.
- Davila-Montes, J. M. (2017). Translation as a rhetoric of meaning. *Poroi*, 13(1), 1-28.
- France, P. (2005). The rhetoric of translation. *The Modern Language Review*, 100, 255-268. <http://www.jstor.org/stable/3738167>
- Frankenberg-Garcia, A. (2009). Are translations longer than source texts?: A corpus-based study of explicitation (pp. 47-58). In A. Beeby, P. Rodríguez-Inés & P. Sánchez-Gijón (Eds.), *Corpus use and translating: Corpus use for learning to translate and learning corpus use to translate*

- (pp. 47-58). John Benjamins.
- Frawley, W. (1992). Ernst-August Gutt,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Oxford: Basil Blackwell, 1991. Pp. ix + 222. *Journal of Linguistics*, 28(2), 516-519.
- Gadamer, H. (1975). *Truth and method*. Continuum.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John Benjamins.
- Gill, S. (2015). Holding oneself open in a conversation — Gadamer's philosophical hermeneutics and the ethics of dialogue. *Dialogue Studies*, 3(1), 9-28.
- Gutt, E.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Routledge.
- Gutt, E. (2011). Common sense, relevance theory and technical communication across language boundaries. <http://bit.ly/3FpP78h>
-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Halliday, M. A. K. (2008). *Intonation in the grammar of English*. Equinox Pub.
- Harkness, N. (2017). Transducing a sermon, inducing conversion: Billy Graham, Billy Kim, and the 1973 crusade in Seoul. *Representations*, 137(1), 112-142.
- Hatim, B.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gman.
- Kelly, L. (1979). *The true interpreter*. Blackwell.
- Kharmandar, M. (2018). A hermeneutic critique on George Steiner's hermeneutic motion in translation. *Crossroads*, 20(1), 83-98.
- Lavoie, D. (1990). *Economics and hermeneutics*. Routledge.
- Levý, J. (2011). *The art of translation*. John Benjamins.
- Lewis, P. (1985). The measure of translation effects.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 264-283). Routledge.
- Lyu, W. (2013). Thinking the correlation between preaching and a local theology. *신학과 실천*, 37, 297-318.
- Lyu, W. (2017). Preaching and its cultural context - A homiletic issue through the work of H. Richard Niebuhr's Christ and culture. *신학과 실천*, 55,

187-209.

- Mahlberg, M. (2006). Lexical cohesion corpus linguistic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1(3), 363-383.
- Munday, J.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 Newmark, P. (1987). The use of systemic linguistics in translation analysis and criticism. <https://doi.org/10.1075/z.lt1.27new>
- Nida, E. A.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 Palmer, R. (1969). *Hermeneutics*. Routledge.
- Pym, A. (2010).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Routledge.
- Reiss, K. (2014).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E. F. Rhodes, Trans.). Routledge.
- Ricoeur, P. (1977). Schleiermacher's hermeneutics. *The Monist*, 60(2), 181-197. <http://www.jstor.org/stable/27902471>
- Seleskovitch, D., & Lederer, M. (1984). *Interpreter pour traduire*. DidierErudition.
- Seleskovitch, D. (1978).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Pen and Booth.
- Shuttleworth, M., & Cowie, M.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St Jerome Publishing.
- Sperber, D., &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 cognition*. Blackwell.
- Steiner, G. (1975). *After Babel*. Oxford University Press.
- Stolze, R. (1997). The hermeneutic approach in translation. *Ilha do Desterro*, 33, 57-69.
- Stolze, R. (2010). Hermeneutics and translation. In Y. Gambier (E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1. pp. 141-146). John Benjamins.
- Stolze, R. (2012) The hermeneutical approach to translation. *Vertimo Studijos*, 5, 30-42.

- Stolze, R. (2022). Hermeneutic translation and translation criticism. *Lublin Studies in Modern Languages and Literature*, 46(2), 111-122.
- Stolze, R., Stanley, J., & Cercel, L. (2015). *Translational hermeneutics*. Zetabooks.
- Stotsky, S. (1983). Types of lexical cohesion in expository writing: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vocabulary of academic discours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4(4), 430-446.
- Sypert, J. A. (2015). Redeeming rhetoric: Augustine's use of rhetoric in his preaching ministry. *Eleutheria*, 4(1), 18-34.
- Thiselton, A. C. (1992).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Zondervan.
- Valentino, R. S., Emery, J., Forrester, S., & Kuzmanović, T. (2017). Rhetoric, translation, and the rhetoric of translation. *Poroi*, 13(1), 1-12.
- Venuti, L.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Routledge.
- Włodarczyk, R., Żłobicki, W., Humeniuk, M., Paszenda, I., Pietkiewicz-Pareek, B., & Lubowicka, G. (2020). *Hermeneutics, social criticism and everyday education practice*. Instytut Pedagogiki Uniwersytetu Wrocławskiego.
- Yim, J. (2024). Sentence length and translation: A comparative review of human, NMT, and LLM translations. *T&I Review*, 14(1), 69-93.
- Yus, F. (2009). Relevance theory. In B. Heine & H.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pp. 679-702). Oxford University Press.
- Zhang, J. (2010). Looking into the hypothesis of deverbalization. *FORUM*, 8(1), 213-236.
- Zydatiss, W. (1983). Text typologies and translation. *The Incorporated Linguist*, 22(4), 212-221.

## A study on the hermeneutical role of sermon interpreters

**Hee June Kim** (aupio1970@gmail.com)

Independent Researcher, Senior Preacher at Gowon Chapel

### Abstract

This article defends the view that sermon interpreting is a bona fide hermeneutical practice and should be grounded in Gadamer's hermeneutical model of the fusion of horizons. It explores how Gadamer's hermeneutical theory can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bridging differences between the preacher and the audience, integrating them into a greater, unified whole. Gadamer's position is strengthened by Steiner's hermeneutic motion, which asserts that tran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hermeneutical manner. On the other hand, Gutt's idea of interpretive use, based on Sperber and Wilson's relevance theory, can serve as a methodological basis for Gadamer's and Steiner's hermeneutical ideals. This essay argues that Gutt's interpretive use can provide an ideal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ranslational hermeneutics. Gutt's distinctive proposition is that the hearer is entitled to assume that their initial interpretation corresponds to the communicator's intended meaning. This paper contends that Gutt's theory offers a methodological cornerstone for translational hermeneutics, highlighting the need to develop and employ novel and pre-existing methodological categories. In summary, Gutt's theory and Gadamer's fusion of horizons offer a robust framework for sermon interpreting.

**Keywords:** Translational hermeneutics; sermon interpreting; Relevance Theory; interpretive use; hermeneutics

**키워드:** 해석학적 통번역, 설교통역, 타당성 이론, 해석적 용법, 해석학

김희준

독립연구자, 고원교회, 담임목사

aupio1970@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1월 20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15일